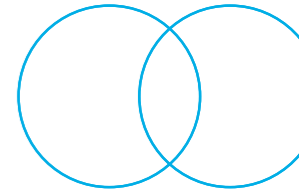


아 무 도 가 지 안 은 길

2021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늘 정진하겠습니다

INTRO

인사말 03

1 빛나는 순간

2021 10대 포토뉴스 06
숫자로 보는 2021년 08
푸르메와 사람들① 10
- 정호승 시인

2 희망을 심고 가치를 수확하는 농장

오늘도 행복한 푸르메소셜팜 13
사진으로 보는 푸르메소셜팜 1년 14
푸르메와 사람들② 16
- 곽연주 재배사

3 같이 성장

배분 사업 19
푸르메와 사람들③ 24
- 김정숙 영부인
재활의료 사업 26
푸르메와 사람들④ 31
-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지역사회복지 사업 32
자립 사업 37
전문가 대담 41
-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자립
장애인식조사 45

4 함께 나눔

모금 사업 47
함께하는 이웃 | 기부자 50
함께하는 이웃 | 파트너 52
푸르메와 사람들⑤ 54
- 김윤태 더미라클스 회원

5 푸르다, 푸르메

투명한 푸르메 56
푸르메재단 소개 58

2021년은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드디어 온실을 완공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5주년,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재단 산하 복지관과 여러 기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힘껏 도왔습니다. 이 모두가 푸르메와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22년에도 푸르메재단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9월이면 푸르메소셜팜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식으로 개원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포함해 많은 시민이 찾아와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이곳에서 발달장애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또 올해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40주년, 푸르메재활의원과 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아이존, 행복한베이커리&카페가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시간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격려해주시고, 더욱 발전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해 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우리 모두 두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뻗어주신 많은 기부자님 덕분에 저희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선뜻 내어주시고도 부끄러우니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 하신 기부자님을 뵈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푸르메재단을 믿고 손 내밀어주신 기부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늘 정진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지원**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푸르메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푸르메재단이 걸어온 나눔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헤쳐온 힘은
지금도 장애인 곁을 지키는 당신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진 보통의 삶을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적과 희망을 만들어 낸 모두가 푸르메입니다.**

2021 10대 포토뉴스



푸르메소셜팜 유리온실 완공
똑똑한 스마트팜의 문을 열고, 발달장애 청년 38명이 방울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청년 자립의 마중물이 된 SK하이닉스
푸르메소셜팜 건립에 총 50억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
30만 장애어린이의 걸을 지킨 5년, 우리가 하나 되어 이뤄낸 모두의 기적입니다.



“따로, 또 같이” 참여형 기부 캠페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기부 캠페인을 기획해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시켰습니다.



선한 뜻을 기리는 김정주·이철재 기념홀 오픈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이 되어준 고마운 얼굴과 이름을 새겨 기념홀을 명명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위촉
김민재 홍보대사는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4,500명 대상 22억 원 규모로 성장한 배분 사업
장애어린이 의료비, 보조기기, 가족 지원 등 착한 기업들과 손잡고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오랜 믿음이 만들어낸 통 큰 기부
오랜 인연을 맺은 한 기부자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액의 부동산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2011년 장애인과 함께 뿌린 행복 씨앗은 10년이 흘러 나무가 되고 커다란 숲을 이뤘습니다.



대통령 나눔단체 초청행사 참석
청와대에 발달장애 청년이 키운 희망의 방울토마토를 선물하고 소중한 성금을 전달받았습니다.

2021년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께 노력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1년

재단 설립

16

주년

재단 설립 16주년을 맞은 2021년, 젊은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은 푸르메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푸르메재단의 2021년은 어느 해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배분 사업

4,656

명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재활, 사회 적응·자립, 교육·문화·여가 등 다방면에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재활의료 사업

210,068

명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어린이와 장애인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과 치료, 보조기기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자립 사업



48,643

명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청년이 사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돕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1,017

개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새롭게 기획한 129개의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사업

316,281

명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지역연계 서비스, 체육·독서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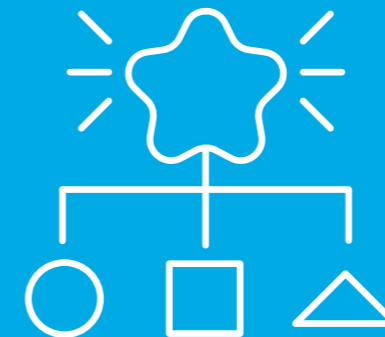
푸르메 가족



589

명

푸르메재단 사무국과 15개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2021년에도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원봉사자

2,264

명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푸르메를 찾은 수많은 이웃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푸르메재단을 위한 시

사랑의 푸른 산

산이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처럼 찾아갈 수 있는 산
 맑은 햇살과 바람과 새소리를 들으며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산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산을 간절히 보기 위하여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는 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16년 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들판에 푸른 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마음이 모여 삼을 들고
 다시 첫 마음이 모여 팽이를 들고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아픈 첫 마음이 모여
 푸른 산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갈 길이 너무 멀어 쓰러졌으나
 때로는 애써 만든 산이 무너져 첫 마음마저 무너졌으나
 절망 속에 희망이 있는 법
 희망의 나무는 절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법

정호승 시인

우리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무너졌으나 다시 삼을 뜨고 팽이를 하고 나무를 심어
 하나의 산이 두 개의 산으로
 두 개의 산이 세 개의 산으로
 세 개의 산이 우리 모두의 산으로
 대한민국에 푸르메재단의 산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태백산 황지연못에서 솟아난 한 방울 물이
 낙동강을 이루고 드디어 바다를 이루듯
 16년 전
 한 알의 흙이 흙과 흙을 모아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
 그 옥토에 희생과 봉사 그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푸른 나무가 되어
 드디어 나뭇가지마다
 푸르메재단빅스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스포츠센터
 푸르메어린이도서관
 푸르메소셜팜

푸르메스마트팜서울농원이라는 열매가 맺어
 우리 마음속에도 푸르메라는 희망의 열매가 맺어
 위대하다 우리들의 첫 마음
 감사하다 첫 마음을 도와주는 기부자들의 첫 마음
 가난하지만 부자인 그 첫 마음으로
 날마다 푸르메재단이 쌓고 가꾸는 푸른 산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처럼
 일하고 쉴 수 있는 산
 꿈과 희망의 나무가 자라는 산

푸르메재단 그 푸른 산은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오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함께 모여 일하고 쉬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푸르메재단은 아름다워라 감사하여라 영원하여라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정호승님은 2006년부터
 푸르메재단 기부자로서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왔습니다. 장애청소년 백두산 등반,
 장애어린이 부모 대상 시 강연회, 어린이재활병원
 개관기념 작가초대전, 정호승과 떠나는
 작은 여행 등으로 푸르메재단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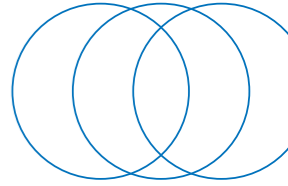
2 희망을 심고 가치를 수확하는 농장



푸르메소셜팜을 통해 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쳐 바람직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발달장애 직원 **38**명
총 지원 인원(연인원) **8,478**명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워 행복의 열매를 나눕니다.



푸르메소셜팜이 온실을 완공하고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농장은 하루하루 달라지며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발달장애 직원은 1기 15명으로 시작해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바짝 긴장한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청년 농부들이 되었지요. 입사 초기 무표정하게 말 없던 직원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 돕고 가르쳐주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직원들과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근로·직무지도원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농장 건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해주신 기부자분들과 기업, 단체는 물론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해 주시는 SK하이닉스와 후니드, GS리테일, 소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맛있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는 9월이면 푸르메소셜팜이 베이커리 카페와 교육문화시설까지 갖춘 완전한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 농장이 성공 모델이 되어 제2, 제3의 푸르메소셜팜이 생기고, 전국 곳곳에 이 같은 장애인 일터가 생길 날을 바라봅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정당하게 일할 기회와 행복을 주는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 푸르메소셜팜에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농장 정식 오픈을 기다리며,
푸르메소셜팜 대표 김 병 두

사진으로 보는 푸르메소셜팜 1년

전국 최초 스마트팜 기반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터로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푸르메소셜팜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2/5

재단 신입사원 교육 및 조보아 깜짝 선물 증정

2021년 2월 푸르메재단에서 푸르메소셜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 조보아 님이 깜짝 등장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3/8

신젠타코리아와 작물 재배 업무 협약 체결

처음 맞는 봄, 귀한 씨앗을 뿌리기 위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신젠타코리아는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돕고자 프리미엄 종자, 전문인력, 생산 기술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4/6

유리온실 완공 및 방울토마토 모종 정식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리온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농장 건립에 큰 힘을 보태 주신 분들을 모시고, 스마트팜 오픈을 기념하는 방울토마토 모종 1만 주를 심었습니다.



5/21

표고버섯 배지 입상

표고버섯 배지 1만5천 봉이 4개월간의 배양을 마치고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포장된 배지를 개봉하고 버섯재배사에 입상해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6/16

방울토마토 첫 수확

방울토마토 모종에 열매가 열려 직원들과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푸르메소셜팜 대표 품종인 스위트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으며 식감이 좋은 방울토마토입니다.



6/17

방울토마토·표고버섯 납품

발달장애 청년 농부의 꿈이 담긴 방울토마토와 표고버섯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 GS리테일 등은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7/30

먹방 크리에이터 프앙 방문

구독자 400만 명 달성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프앙이 푸르메소셜팜을 찾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직원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생산품을 구매해 선한 나눔을 펼쳤습니다.



5~8월

2021년 신규 직원 채용

한 해 동안 23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2~4기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리프트 고소작업 등 실기전형을 추가해 각자의 능력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9~10월

2021년 전 직원 대상 교육

푸르메소셜팜 직원들이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각종 직장인 필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푸르메소셜팜입니다.



12/31

푸르메소셜팜 건물 완공

14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리온실부터 가공동, 복합동, 카페동까지 자리 잡은 희망의 농장은 9월이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을 기다리는 행복한 농부 곽연주 재배사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짓기 시작한 푸르메소셜팜. 2년여의 준비 끝에 2020년 10월 푸르메소셜팜을 착공하면서 1기 직원 15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4기까지 채용해 총 38명이 근무 중이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푸르메소셜팜이 이들에게 좋은 일터가 되고 있을까요? 갑작스레 시작된 의문에 당사자인 장애청년과 그를 가장 잘 아는 부모를 직접 만났습니다.



곽연주 재배사와 어머니 정경미 씨

“월요일이 뭐예요?”

2021년 5월, 푸르메소셜팜 3기 직원 합격자 발표날.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연주가 떨어져 못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대신 열어 합격이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동네방네 다 연락해 자랑했어요.” 첫 월급날, 연주 씨(29)는 월급봉투와 함께 명함 한 통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9년간 꾸준히 일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있어요. 푸르메소셜팜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열심히 설명하면서요.” 엄마 정경미 씨는 명함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연주 씨의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최근 다리를 다쳤던 연주 씨는 다 나을 때까지 쉬라는 농장의 권유에도 꼬박꼬박 출근했습니다. 거기서 엄마는 그토록 꿈꿔왔던, 진정한 직장인이 된 딸의 모습을 봅니다. “전 직장에 다닐 때는 월요일 출근 생각에 일요일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주말만 되면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연주 씨에게 푸르메소셜팜은 행복을 주는 공간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줄기와 푸릇한 잎사이에 묻혀 빨갭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으면 지겨울 새 없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답니다. “온실에서 토마토를 따다 보면 주변에서 풀 냄새가 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빨갭게 익은 토마토를 골라내는 것도 재밌어요.” 하루의 고단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친한 동료들도 생긴 연주 씨, 푸르메소셜팜에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알아갑니다.

꿈이 자라는 공간, 푸르메소셜팜

두 번째 월급을 받은 날, 연주 씨는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청약 저축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멋진 꿈이 생겼거든요. “아직은 엄마와 떨어져 살 용기가 없지만, 돈을 많이 모아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어요.” 이런 꿈을 얘기한 것은 직장생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거나,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했거든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되니 그만큼 꿈도 커졌어요.”

연주 씨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푸르메소셜팜에서 정규직 장애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일한다는 게 마음에 쏙 들었던 모녀. 일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가입으로 마땅히 일한 만큼 대우해줘야 한다는 푸르메소셜팜의 원칙에 엄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푸르메소셜팜 정규직원은 연주에게는 큰 자부심이예요. 푸르메소셜팜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장의 개념을 넘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지요.”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평범한 하루

교직에 몸담고 있던 엄마는 연주 씨를 위해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아이’로 옮겨간 것입니다. “장애자녀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재활치료 대신 아이를 옹호해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직접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자극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연주 씨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라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필사를 해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가 늘었으면 식사도 간단하게 먹어요.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쓰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편지도 써요.” 얼마 전에는 생일을 맞은 엄마에게 용돈 20만 원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상상만 해왔던 일이 현실로 이뤄졌다는 생각에 엄마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벅차롭니다. 일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연주 씨. “오늘 내 하루는 어땠는지, 엄마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얘기할 때 너무 즐거워요.” 그녀의 입에서 행복했던 하루가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엄마의 하루에도 행복이 스며듭니다.

“연주가 자신이 번 돈으로 독립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푸르메소셜팜을 다니면서부터 그 바람이 꿈만은 아닌 것 같아 무척 설렙니다.”



3 같이 성장



배분 사업 **4,656**명

재활의료 사업 **210,068**명

지역사회복지 사업 **316,281**명

자립 사업 **40,165**명

총 대상 인원 **571,170**명

푸르메재단은 15개 산하기관과 함께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분 사업, 재활의료 사업, 지역사회복지 사업, 자립 사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배분 사업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재활치료를 받고 예체능, 특기적성을 개발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비장애형제의 교육비와 심리지원비, 장애부모의 심리지원과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가족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의료 재활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의료지원을 통해 신체기능 강화 및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경감,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 319,920,000원
지원자 : 192명



의료비 지원

수술이 절실하거나 입원, 검진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어린이들에게 수술비, 주사비, 검사비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 18,404,000원
지원자 : 9명



치과 치료 지원

치과 치료가 시급한 성인 장애인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충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환한 미소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업비 : 9,600,000원
지원자 : 12명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희귀난치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약제비, 치료기구 등을 제공했으며,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상담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업비 : 199,048,000원
지원자 : 65명

INTERVIEW

“희귀난치 질환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비 부담이 컸어요. 때마침 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이가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아이가 학교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자 김민석(가명) 보호자



사회적응·자립

장애어린이에게 보조기구는 단순한 재활기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 당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기구, 정형신발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신체기능과 활동이 제한된 장애어린이의 몸에 꼭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사업비 : 722,990,000원
지원자 : 332명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지원

발의 변형이나 다리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어린이에게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맞춤형 정형신발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 5,960,000원
지원자 : 13명

CASE

임채원(가명) 군은 2012년, 2018년 총 2번의 교통사고로 중증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원인불명의 보행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스스로 이동권을 보장받으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INTERVIEW

“희찬이가 보조기구를 지원받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안전해졌어요. 특히 등받이 경사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인 기능이 휠체어에 탑재돼 원찬이가 힘들어할 때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세가 불편하면 많이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항상 웃으며 이동하는 모습이라 기뻐요.”

-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자 주희찬(가명) 보호자



교육·문화·여가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육 및 영재발굴단 지원사업을 실시해 잠재된 재능 및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부모, 형제 등에게는 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가족 기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장애가족 교육비 지원

비장애형제·자매와 장애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 계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업비 : 394,530,000원
지원자 : 234명



장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장애어린이를 케어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 강화, 우울증, 스트레스 감소 등을 위해 심리치료, 가족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 34,830,000원
지원자 : 25명



장애가정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위기를 마주한 장애가정을 위해 각종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 69,216,000원
지원자 : 274명



장애인식개선 도서 지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동화책 ‘내겐 소리로 인사해 줘’를 발간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사업비 : 35,000,000원
지원자 : 3,500곳

CASE

지체장애를 가진 수영선수 정용기(가명) 씨는 영재발굴단 사업을 통해 각종 훈련비와 경기용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제 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54.45초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INTERVIEW

“처음 났을 때부터 어머니 이경숙 씨는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둘째 아들 채용이는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표현을 하지 않았지요. 지금은 고민도 먼저 이야기하고 해결이 힘든 문제는 도움을 요청하곤 해요. 경숙 씨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심리상담 치료 덕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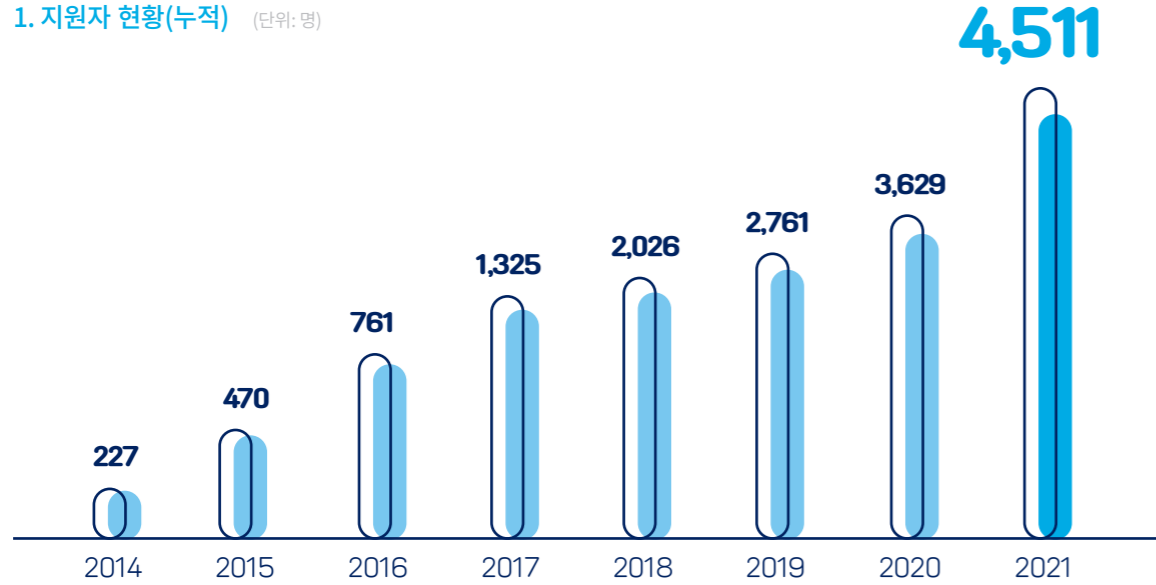
- 이준영 한양JY심리발달센터장



배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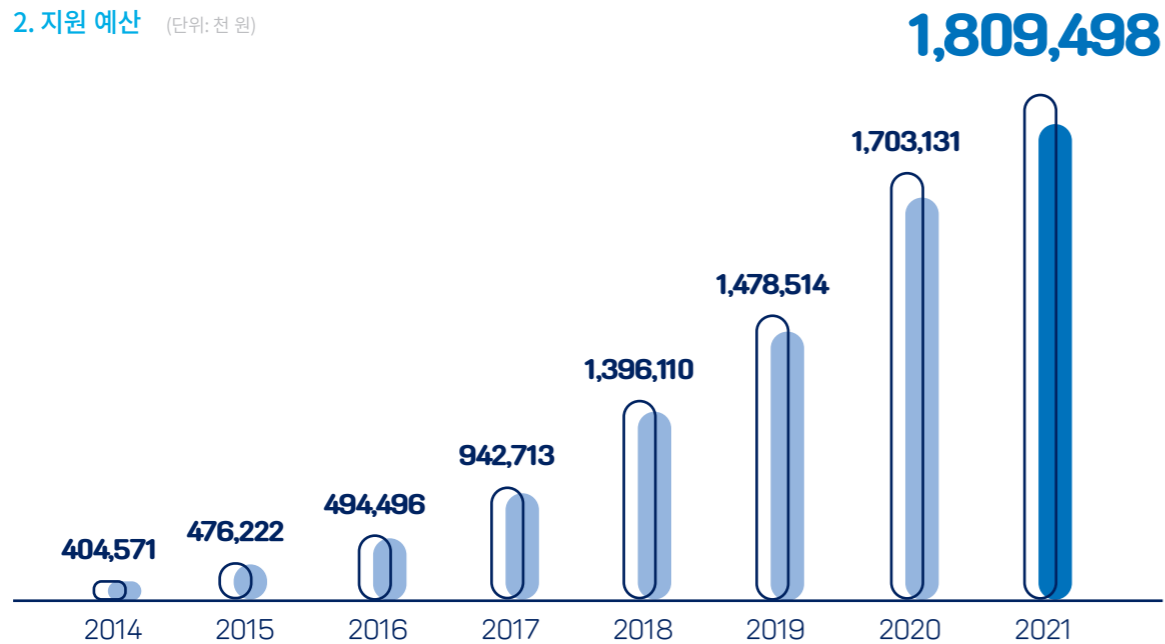
푸르메재단은 매년 장애어린이가 제때 치료받으며 꿈을 키우고,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 지원자 현황(누적) (단위: 명)



* 장애가족 생필품 및 장애인식개선도서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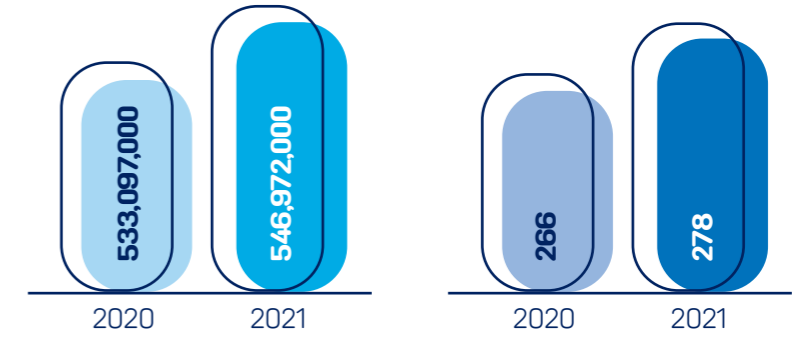
2. 지원 예산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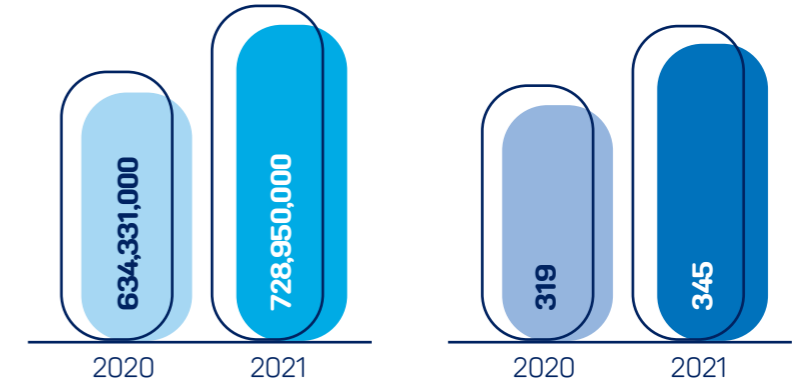
3. 지원사업별 성과

■ 사업비(원) ■ 지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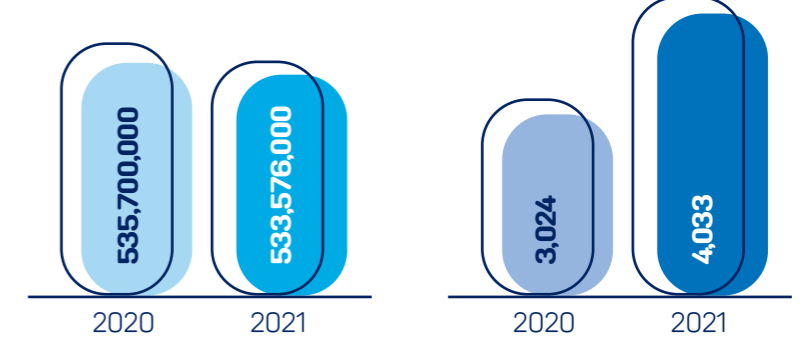
의료·재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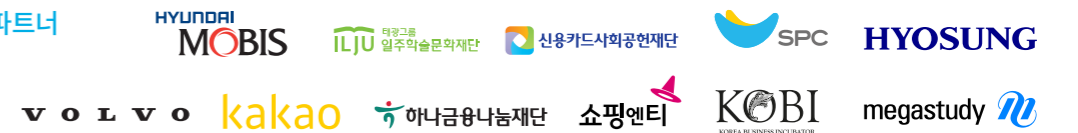
사회적응·자립 지원



교육·문화·여가 지원



함께하는 파트너



영부인 김정숙 여사



기적의 병원 5주년을 축하합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5주년 기념 축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우리 정부에서 첫 삽을 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마중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재활치료에 힘써오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키워주신 수많은 기부자와 기부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생일마다, 기부를 계속해 온 김은유 어린이와 가족의 미담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생일 선물보다 다른 친구들이 치료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게 좋다는 그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함께해 주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귀하고, 귀합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 재활치료를 전담해왔으며, 우리 정부에서 첫 삽을 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마중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일 300여 명, 총 누적 33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해 온 푸르메 병원은 '기적의 어린이재활병원'으로 불려왔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던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배움의 의지를 갖고 학교에 가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어린이 자신과 가족들의 간절한 노력, 의료진의 헌신을 되새겨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함께 가려면 느리게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잠재된 힘을 가진 우리 사회의 존엄하고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그 힘을 끌어내며 함께 손잡고 가는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입니다.

저는 2019년 제74차 UN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유니세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회의'에서 “모든 어린이는 마땅히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어른 세대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2019년 핀란드 순방 시에는 헬싱키 신아동병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어른들과 사회가 함께 느끼고 치유해가는 어린이 재활병원의 지향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각자 살고있는 지역에서 치료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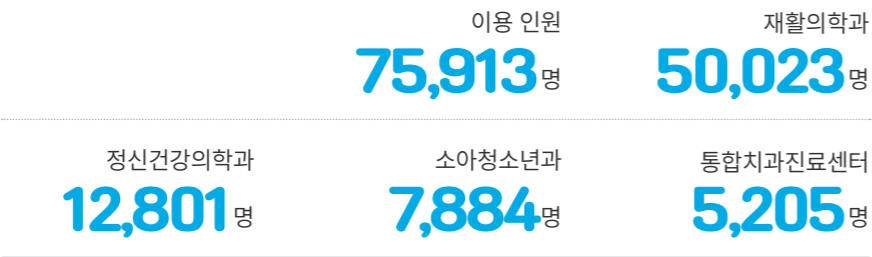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단단한 의지와 희망으로 지금, 이 순간도 재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여러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와 풀과 꽃들이 차례차례 새잎을 내고 피어나며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꽃피는 날이 다를 뿐
너도 꽃이다, 나도 꽃이다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나 너를 기다리고, 너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꽃이다

어떤 어린이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활 의료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형 재활치료, 치과치료, 보조기기 등 재활의료 사업을 펼쳐 건강한 성장과 삶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 통합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에 힘썼습니다. 운영 위기 속에서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4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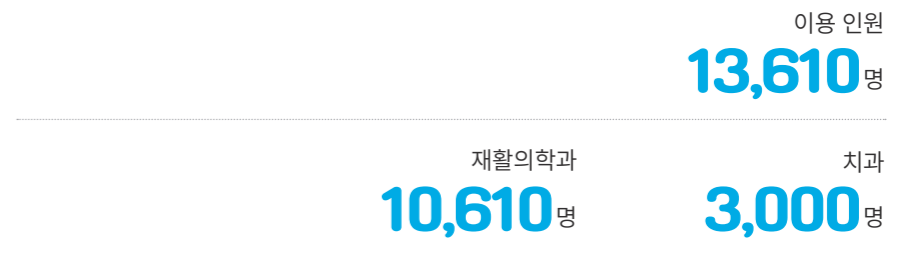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통합 재활의료 서비스

이른둥이 대상 조기중재 '우쑥우쑥' 사업의 치료 대상을 24개월 미만 발달지연 및 장애 고위험군 영유아로 확대했습니다. 신체 발달과 인지정서 발달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평가 지원, 부모교육 등을 제공했습니다. 학령기 아동 대상 '학교준비반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 사회활동 참여 및 행동조절기능 향상을 도왔습니다.

INTERVIEW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쑥우쑥 사업에 참여해 아이가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이 상태에 맞춰 치료해 주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치료 방법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우쑥우쑥 사업 참여자 이경수(가명) 보호자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재활의학과위원과 치과의원이 의료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장애 자녀 돌봄으로 지친 부모와 소외됐던 비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임플란트, 하악틀니 등 치과 치료도 지원했습니다.

장애가족 힐링 프로그램 '다독다독'

하루 24시간 장애 자녀의 곁을 지키는 부모들이 재활치료 대기시간 동안 마음을 치유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아트, 플라워 클래스, 아로마테라피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비장애형제를 위한 자수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INTERVIEW

“늘 아이의 치료 스케줄에만 맞춰 지냈는데,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 행복했어요. 프로그램에 집중했던 제 모습을 떠올려봤더니 흐뭇하네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다독다독 프로그램 참가자 후기



이용 인원	재활치료
9,223 명	7,570 명
가족지원	교육·연계
788 명	834 명
	행사·연구
	31 명

이용 인원	보조기기 임대	제작·개조·수리
77,287 명	76,472 명	329 명
소독·세척	무상지원	지역복지연계
166 명	162 명	158 명



발달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부담이 커진 발달장애 어린이 가족을 위해 전문가 초청 부모 교육,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모 취미 활동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종로구 내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 대화 기술, 원예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처음 접하는 학교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간단한 학급 규칙을 익히게 하면서 학교 적응력을 향상했습니다.

INTERVIEW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하나씩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작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간다면 머지않아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요. 아이들 곁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종로아이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종로아이존 이용 어린이 부모 서선영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했습니다. 이용자의 편안한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새롭게 마련했고, 발달장애 어린이 가정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해 장애 유형별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보조공학서비스 컨설팅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계획이 있는 유관 기관 및 특수학교 이용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적합성 평가, 올바른 기기 사용 안내 등을 지원했으며, 복지관과 함께 맞춤형 필기 보조기기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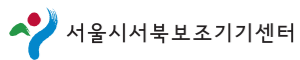
INTERVIEW

“저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AAC 보조기기에 대해 알리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단 마음으로 보조기기 UCC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최우수상까지 받게 됐어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동남보조기기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AAC 이용자 및 보조기기 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정호준



이용 인원	34,035 명	보조기기 임대	33,209 명
제작·개조·수리	174 명	소독·세척	531 명
		무상지원	121 명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화장실·욕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제작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품목에 보조공학기술 접목을 시도했습니다.

**장애어린이·청소년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 학업 또는 예체능, 기타 사회 분야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전도유망한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첨단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온 사업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변화의 롤모델을 제시했습니다.

INTERVIEW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 위까지 절단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새로운 보조기기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학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보행 패턴과 몸의 균형을 확인하는 등 적응 훈련을 한 덕분에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첨단보조기기 지원자 모현

푸르메의 십년지기를 소개해요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이정모 과천국립과학관장이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올해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돕고자 푸르메재단 정기기부자가 된 것이 그 시작이었지요. 이후 과학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어린이들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의 기부를 독려하는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푸르메재단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왔습니다. 새 책을 내면 인세 일부를 기부하고, 장애와 나눔에 대해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지요. 푸르메재단의 어떤 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처음 어린이재활병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기부했어요. 푸르메재단이 단순히 열정이나 따뜻한 마음만 가진 단체가 아니라, (병원 설립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있는 곳이었기에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요. ‘그런 병원을 민간단체가 지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죠. 실제로 병원이 개원해 많은 장애어린이를 치료하고, 나아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델이 된 것을 보며 기부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 관장은 어린이재활병원에 이어 푸르메재단이 진행하는 발달장애 청년 일터 건립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18년 푸르메소셜팜에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의 20번째 회원이 되었지요. 다른 회원들의 선행과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이지선 한동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푸르메소셜팜은 지난해 3월 유리온실을 완공하고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는 중입니다. 발달장애 청년 38명이 정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지요. 이 관장도 지난해 더미라클스 회원들과 함께 푸르메소셜팜을 방문, 농장을 둘러보며 청년농부들과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드립니다. 첫 방문 당시 예상보다 훨씬 멋진 농장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농업이라고 하니, 사실 겨우겨우 꾸려가는 작은 농장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1200평에 달하는 번듯한 유리온실에서 첨단기술로 키우는 방울토마토의 모습이 정말 근사하더군요.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터였어요. ‘이런 곳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구나!’하고 감탄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은 온실 외에 베이커리 카페 등을 완공하고 오는 9월 정식으로 개원합니다. 푸르메재단의 십년지기로 이 관장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좋은 일터로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랍니다. 또 전국에 이런 멋진 일터가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일터를 마련하는 정책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좋은 일터로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 사업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지역연계 서비스, 체육 및 독서 문화 조성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이뤄가도록 지원했습니다. 사람중심·지역중심 실천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맞춤형 재활 및 운동 관리, 건강 증진 활동, 개별화 욕구와 권리 기반의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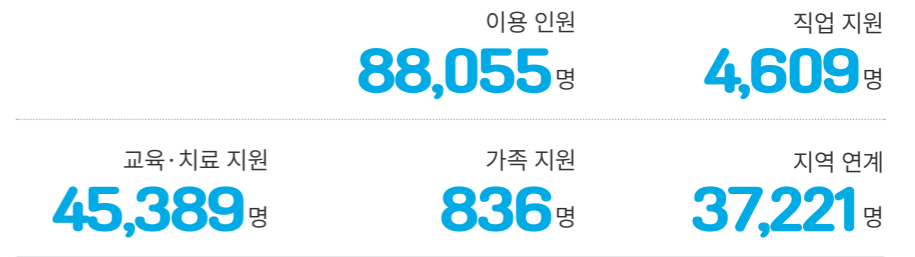
마을지향 평생교육 지원

지역사회 평생교육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 및 이웃을 소모임 단위로 구성하는 평생교육 열린 소모임 ‘반딧불(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불빛을 이루는 모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확대되고, 사회적 관계망도 확장했습니다.

INTERVIEW

“모임에서 늘 신영이가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올 한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을에 이런 모임이 많아져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웃들이 내 아이를 알아봐 주고,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주는 것만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실감해요.”

- 평생교육 열린 소모임 ‘반딧불’ 사업 참가자 한금옥



장애인이 전인적 재활과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상담, 치료, 직업,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개별화 복지 서비스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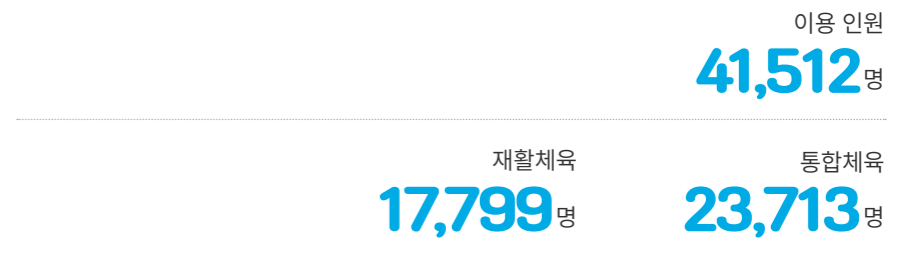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

평생교육을 원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 및 가족, 프로그램 강사의 사례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200여 명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INTERVIEW

“달걀프라이도 하지 못했던 현승이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집에서 밥하는 법,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줬더니, 하루는 저녁상을 차렸더라고요. 활동 지원 선생님의 도움 없어요. 그날의 한 상 차림은 제 생애 최고로 맛있는 한끼였어요.”

- 발달장애인 교육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이현승(가명) 어머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 및 집단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무장애길 조성, 장애인식개선,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역사회와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직업PCP
맨투맨 사업**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도적인 직업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욕구분석 및 자기주도적 직업·자립실현계획을 수립하고, 1:1 개별 지원을 실시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중재활, 특수체육, 통합수영 등 체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서서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실
개설**

장애 특성에 맞춘 각종 재활 운동기구를 배치해 장애인의 자율적인 운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실을 개설했습니다. 자율운동뿐 아니라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 건강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고, 이용자 건강 체크, 맞춤 운동 처방을 통해 효율적인 운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INTERVIEW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 활동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운동같이 야외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겠습니다.”

- 직업PCP 참여자 박효준

INTERVIEW

“협착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의사로부터 아쿠아로빅 재활을 권유받고 스포츠센터를 방문했어요. 상담 후 수중재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아쿠아로빅, 어울림건강교실까지 참여해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팔다리가 아프고 자세도 구부정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 건강증진 프로그램 어울림건강교실 참가자 최경숙



자
림
사
업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 훈련, 직업 능력 개발, 근로 기회 제공 등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용 인원
25,806명

도서 열람 **22,652**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3,154**명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으며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독서동아리 프로그램을 개편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해 반납 도서 배가 작업, 훼손 도서 수리, 소독작업, 출입문 관리,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해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NTERVIEW

“발달장애인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서보조 사업을 통해 도서 분류 업무를 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기회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했어요.”

-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사업 참여 잡코치 정미경

이용 인원
6,645명

고용 지원 **4,368**명
교육 지원 **2,277**명



중증장애인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가공 작업으로 출근하는 장애인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분산 근로와 방역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예술 전시회 ‘끈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8인과 협력해 이용장애인의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미술활동을 통해 예술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고, 발달장애인의 예술성을 한층 더 발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 전시회 ‘끈끈’을 열어 중증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NTERVIEW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리거나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앞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 볼 테니까 좋은 제품 만들어주세요!”

- 예술 프로그램 참가자 김현호



이용 인원
18,757명

고용 지원 **18,184**명 교육 지원 **573**명

PaniS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작업환경 안에서 직업 재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 유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및
HACCP 인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돼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했습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지속 관리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HACCP 인증을 획득하면서 더욱 청결한 생산환경을 갖췄습니다.

INTERVIEW

“저는 16년 동안 파니스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올해 가장 좋았던 것은 오븐을 다루는 일과 강당에서 진행한 원예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중무식에서 서울시장상을 받고, 회사에서도 완벽청소대장상을 받아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 제과제빵부 근로장애인 김성룡

이용 인원
6,211명

직업 지원 **6,006**명 교육 지원 **205**명

행복한 베이커리
커피

코로나19 상황에도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입점, 선물세트 판매, 계절음료 개발, 유명 베이커리 제품 입점, 원두 드립백 판매 등 새로운 도전으로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복지관과 연계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직무지원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안국점 2개소
신규 오픈**

서울공예박물관 내 안국점 2개소를 새로 열고, 점·부점장 3명과 발달장애 바리스타 1명을 고용했습니다. 매출 상황에 따라 향후 발달장애 직원을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전시 포스터를 모티브로 컵홀더를 제작해 고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INTERVIEW

“저는 10년차 바리스타입니다. 상암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9월부터 새로 문을 연 안국점에서 일해요. 요즘 코로나 19로 장애인 친구들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거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고 매장 경쟁력도 높여서 많은 장애인 친구가 행복한베이커리&카페에 취업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 안국점 바리스타 김윤우



이용 인원
8,552명

직업 지원
7,517명

교육 지원
1,035명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꽃차 패키지 등 생산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방문객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해 수익성을 높였으며, 이용인 수도 전년 대비 53% 늘렸습니다.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

코로나19로 농장에 방문할 수 없는 학교와 기관에 서울농원이 직접 찾아가는 ‘밭·돌·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티움복지재단, 포천노인복지관,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함께했습니다. 체험 키트와 설명 동영상 등을 제작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INTERVIEW

“농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꽃과 블루베리를 따고 고구마를 캐는 게 재미있고 좋아요. 농작물을 관리하고 와서 동료들과 꽃차를 마시는 시간도 행복해요. 고구마 심기 전에 땅을 정리하고 수확하는 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2022년에는 블루베리를 더 많이 따고 싶어요.”

- 청년농부 김상철

특별 대담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으로 가는 길**



참석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장춘순 前 우영농원 이사 임규형 푸르메소셜팜 가공서비스사업팀장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장

진행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

“취업한 발달장애인,
삶 만족도·자아존중감 더 높아”

최미영(이하 최)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자립’, 그중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푸르메재단이 최근 기부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3%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선 발달장애인 일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김호진(이하 김) 고용개발원이 진행한 ‘2020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중 취업자 비율은 24%(약 3만 8000명)입니다. 취업자 가운데 87.5%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하고(보호자 판단 기준), 미취업자의 45.8%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요.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언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율은 72.8%인데요.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타인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황 인지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취업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춘순(이하 장) 저는 34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2살 때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후로 줄곧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일자리도 포함됐고요. 농업이 아이에게 유용하겠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여주에서 식물공장을 시작했는데, 제힘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인터넷에서 푸르메소셜팜 이야기를 보았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기술로 농작물을 키우는 푸르메소셜팜이 딱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던 농장터를 기부하고 좋은 일터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김 발달장애인의 취업 욕구는 높은 편입니다. 취업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취업한 발달장애인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사회참여 의지 등이 비취업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56.7%가 만족하지만, 취업희망자의 보호자는 33.3%, 취업비희망자의 보호자는 18.2%에 그쳤습니다.

김호진 팀장



너무 즐겁다'고 해요. 월급날이 되면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이 카페에 와서 기다려요. 우리 직원이 월급을 받아서 빵을 사 준다고 하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사실 가정에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가정 자체가 붕괴하기 쉬워요. 일자리는 단순히 장애 당사자 행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만족도가 달린 문제예요.

“누구나 원하는 일 하며 살아갈 기회 필요”

최 푸르메재단이 만든 ‘푸르메소셜팜’은 어떤 의미로는 혁신적입니다. 농업이라는 분야 때문인데요. 고용개발원 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41%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농림어업은 6.3%로 낮은 현실이거든요. 최근 푸르메재단이 시민(기부자, 잠재기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어떤 직종에서 일할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 요식업(바리스타, 제빵 등) 순으로 대답했어요. 다양한 분야와 직무가 있는데, 푸르메재단이 농업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팜 기반의 일터를 건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임규형 팀장님은 푸르메소셜팜에서 발달장애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데요. 지난 1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규형(이하 임) 사실 처음에는 발달장애 직원들이 취직해서 적응하는 동안 취업만족도가 낮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해보니 취업만족도가 입사 초기부터 매우 높더라고요.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일찍 출근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는 자세가 두드러집니다. 취업한 지 1년이 되면서 만족도나 자신감이 높아지다 보니, 연애나 결혼, 자립,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에게도 취업은 사회생활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장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제 아이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 즐겁다 ’예요. 취업해서 어딘가에 소속된 ‘ 직장인 ’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한 번도 안 쓰던 단어를 동료에게 배워와서 쓰기도 하고요. 아이가 3~4살에 말 배울 때 부모에게 주는 기쁨을 요즘도 주고 있습니다.

백경학(이하 백) 푸르메센터 1층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행복한 베이커리&카페’가 있어요. 제가 출근하다가 직원에게 왜 이렇게 일찍 나왔느냐고 물으면 ‘직장에 오는 게

김 보호자에게 미취업자가 어떤 업무를 원하는 것 같으냐고 물었을 때, 농림어업은 3.3%로 나왔어요. 선호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농림어업에 대한 선호도는 10%까지 높아집니다. 선호도에 비해 농업 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기에 주변에 적당한 일터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푸르메소셜팜 같은 일터가 늘어난다면 선호도나 취업 희망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농장 안에 다른 직종·직무(제조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가 함께 있다면 더욱 높아질 것이고요.

백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푸르메소셜팜과 같은 일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이미 농촌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빈 토지를 임대해 장애인 일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등도 농장에 조립, 목공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 장애인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맞는 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 사실 이걸 발달장애인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 발달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직무교육을 위해 여주 지역 버섯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 분들이 푸르메소셜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교육을 마치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우리랑 같이 채용하자”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푸르메소셜팜에서 채용, 직무개발, 직무교육 등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훌륭한 장애인 취업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푸르메재단이 일자리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푸르메재단이 더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자립은 총총한 인간관계 속에서 완성”



최미영 국장

김 ‘온전한 자립’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보호자들에게 물어보면 ‘장애 당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80%에 가깝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도 부모님과 살고 싶다는 대답이 50%, 결혼하고 싶다는 대답이 25% 정도예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자립해서 (혼자)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요. 제 생각에 ‘온전한 자립’은 가정·사회·정부 누구든 ‘서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상황이 해소된 때가 비로소 온전한 자립이 아닐까요.

최 제가 미국에서 만난 발달장애인협회장도 “왜 발달장애인에게만 자립을 강요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누구도 자립적으로 살지 않아요. 다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요. 장애 당사자를 사랑하고 삶을 지지해줄 주변인이 가장 절실합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를 위해 장애인의 활동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제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나라 특수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지요. 어려운 것은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돌본다기보다는 ‘함께 사는’ 사회가 필요해요. 시설에서 통제당하고 돌봄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활공간이 있고 냉장에서 먹고 싶은 걸 꺼내먹고, 옷장에서 원하는 옷을 꺼내 입고, 원하는 시간에 잘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요. 그게 부모인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봐 주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들의 동네 사람으로 살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아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백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단체에서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협업해서 자폐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카드를 만들어요. 매년 취리히 은행에서 제작 의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다소 비싼 장당 3만 원에 산다더군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카드를 3000원에 사고, 2만 7000원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 스위스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장충순 이사



임규형 팀장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가격(3만 원)을 책정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부럽더군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 농장에서 38명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모여 일하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소수의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이런 점은 ~씨 특징이야’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고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규칙과 방법을 배워가고요. 무엇보다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쌓아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 ‘온전한 자립’은 촘촘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요. 그 역할을 푸르메재단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이룰 수 않을까요. 오늘 대답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학 상임이사

장애인식조사

장애인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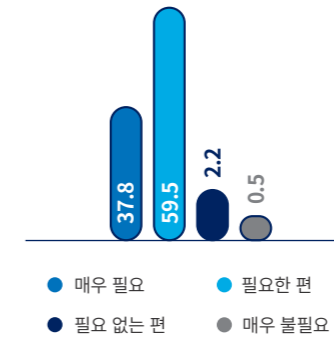
푸르메재단은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대하고자 장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점차 개선하면서 푸르메재단의 사업 가치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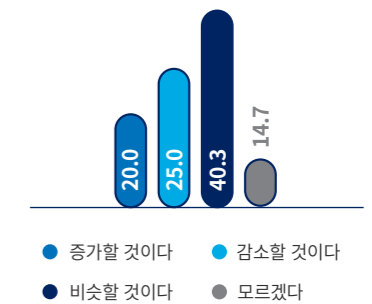
- 조사기간 2021년 12월 10~16일
- 응답방식 온라인조사(Online Survey)
- 조사대상 19~64세 일반 성인 남녀 중 현재 비영리기관 기부자 600명
- 의뢰처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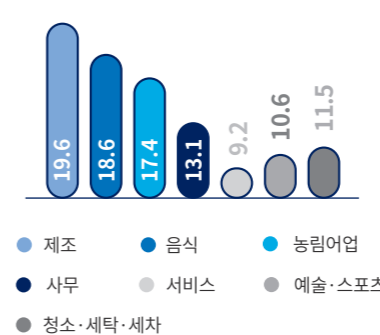
Q.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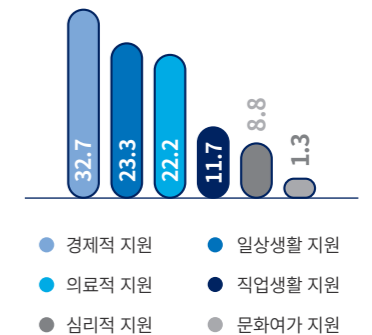
Q. 2021년 대비 2022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당신의 예상은?



Q. 발달장애인이 종사하기 적합한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인가?



4 함께 나눔



모금사업

2021년은 푸르메재단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만 명의 시민과 500여 기업이 모아 준 나눔의 손길로 지어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기적의 개원 5주년을 맞았습니다. 재활치료가 절박한 30만 장애어린이의 곁에서 5년 동안 희망을 키웠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행복한 일터 푸르메소셜팜이 많은 기부자의 나눔으로 완공돼 2022년 9월 정식으로 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뤄낸 모두의 기적입니다.



기획모금팀·
나눔마케팅팀 일동

2021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속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캠페인으로 기부자님을 직접 뵙고 소통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으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지요. 대면 활동은 멈췄지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많은 기부자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기회가 늘고, 새로운 소통방법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을 잃고 어려움이 배가 된 2021년에도 푸르메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장애청년의 자립을 위해 마음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기부자님 덕분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푸르메재단은 전문성과 투명한 기부금 사용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총 모금액

9,576,037,989원

개인 기부자

10,025명

기업 기부

186곳

더미라클스 신규 회원

5명 (전체 34명)

기부자와 함께한 2021년

내 기념일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날 일상의 기적을 나누는 **미라클데이**

2021년에도 많은 기부자가 미라클데일로 특별한 나눔을 선물했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이 우리가 익히 아는 기념일 말고도 ‘아이 어린이집 졸업’, ‘방송 시작 600일’ ‘자원봉사 200시간 돌파’ 등 나만의 소중한 순간을 나눔으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나누어주신 덕분에 2021년은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날이 특별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어덕행덕 팬기부 프로젝트 행복을 나누며 덕질하는, **행덕챌린지**

푸르메재단은 2021년 9월부터 스타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선한 영향력 챌린지 ‘가치덕질’을 시작했습니다. 선한트롯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전유진 등 많은 트로트 가수와 팬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스타의 순산, 생일, 데뷔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성유리, 영탁, 장규리, 양요섭, 안지환 팬클럽에서도 ‘착한덕질’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듣는 푸르메 그림책 **꿈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겹게 살아온 김준철 작가의 푸르메 그림책 <꿈들>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장애인도 희망을 품고 꿈틀거리며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작가의 바람은 이금희 아나운서의 따뜻한 목소리를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It's NEW!

걷고 기부하고 공유하는 푸르메재단의 새 캠페인 **쓰리스텝**

비대면이 일상화한 2021년,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가치걷기 캠페인 ‘쓰리(3)스텝’을 시작했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있는 서울 서촌 푸르메마을길이나 전국의 무장애숲길을 걸으며 기부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입니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서경덕 교수와 나눔대사 김미경 MKYU 대표가 함께하고, 전국에서 836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건강책방 일일호일 등 지역 가게와도 협력한 뜻깊은 캠페인입니다.



2021년 11월 쓰리스텝 캠페인에 참여한 서경덕 교수(왼쪽 세번째)와 푸르메재단 기부자들

쓰리스텝 참가자 말말말

#푸르메마을길걷기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의 자립을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

#무장애노을숲길



“의미 있는 걸기로 마음도 몸도 건강해져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걷기기부



“안전하게 데크로 포장된 산책로가 인상적이었어요.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서 보람뽀뽀”

함께하는 이웃

기적은 혼자 힘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설고 험한 길,
나눔을 손길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낸 희망의 파도 해양경찰교육원 러닝크루 KCGR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 동아리로 만들어진 KCGR(Korea Coast Guard Runners). 현직 해양경찰관 및 교육원생으로 구성된 러닝크루인 KCGR은 “해양경찰의 체력증진과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창단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해양경찰교육원 운동장에 모여 1시간가량 트랙 위를 달리고, 달린 거리만큼 푸르메소셜팜 건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닐까요? 푸르메소셜팜에서 장애청년의 일 자리를 찾아주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끔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가슴 벅찬 오늘을 삽니다 배정수 기부자

“생애 첫 기부,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대학생이자 스타트업 을 위한 플랫폼 개발자로 일하는 배정수 씨는 아픈 가족을 보며 어린 시절부터 기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생이기에 돈을 기부하기 어려워 대학생이 되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봉사단 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회장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활동비를 1년간 모아 푸르메재단에 생애 첫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며 투명한 기부처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그간 베풀어준 가족이나 이웃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기술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길 바라요.”



365일 달려라! 기적의 두 바퀴 송사무엘 기부자

“누구보다 장애어린이의 마음을 잘 알기에 열심히 달려요.” 희귀 난치 질환을 갖고 태어난 송사무엘 씨는 휠체어를 타고 2021 미라클365 버추얼 런에 참가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장애가 막을 수 없었지요. 수많은 수술과 치료, 재활 과정을 똑같이 겪어왔기에 어린이가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해준 어머니와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고 싶다는 사무엘 씨는 건강이 좋아지면서 나눔에도 관심이 늘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잘 인내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개원 5주년을 축하하며 아이들에게 도움 줄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린이의 기적을 담습니다 박성관 기부자



기부는 각자 가진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개원 5주년을 맞아 2021년 4월 열린 ‘푸르메사진관’은 박성관 작가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며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박성관 작가가 푸르메병원 아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기로 한 이유입니다. 더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기적을 품고 당당히 세상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나눔으로 제가 얻은 기쁨이 훨씬 커요. 아이들이 만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사진에 담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푸르메병원에서 만난 어린이 35명과 함께한 하루가 보람합니다.

커피가 전하는 진한 나눔의 향기 푸르메천사가게 ‘카페지기’ 정재민 기부자

서울 망우역 2번 출구 앞, 11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로스터리 카페 ‘카페지기’는 3년 차 푸르메천사가게입니다. 정재민 씨가 카페 수익의 1%를 적립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기 시작한 연말 기부가 푸르메천사가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빠가 되면서 장애어린이들의 어려움에 더 공감했다고 합니다. “장애어린이가 더는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푸르메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덕분이예요.” 카페지기의 매력은 바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입니다. “손님이 스탬프 쿠폰을 모아 모금함에 넣으면 한 장당 커피 한 잔으로 계산해 가게 이름으로 기부해요. 내가 자주 찾는 가게가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가치 있는 소비에 뿌듯할 거예요.”



함께하는 기업

2021년에도 많은 기업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처음 겪는 초유의 팬데믹 사태에 기업도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더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위해 아낌없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었습니다. 2021년에 더욱 빛난 기업들의 나눔을 소개합니다.

넥슨재단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시작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넥슨재단은 2021년에도 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어린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아일보

서울마라톤(동아마라톤)에 굿잡러너 신청 부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협회와 공동 진행한 '도시가스 온론' 참가비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자체 조성 기금과 노조원들의 끝전기부 등을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푸르메소셜팜의 완공을 응원했습니다.



우리카드&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해가 잘 뜨지 않는 날에도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푸르메소셜팜에 보광등 설치를 지원했고, '우리카드 디지털도시농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카드 임직원과 발달장애 청년농부가 함께 토마토, 버섯을 재배했습니다.



파인밸류자산운용(주)

매월 꾸준한 정기기부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장애어린이에게 적합한 재활치료 및 보행재활로봇(맞춤형 집중운동 재활치료기기)을 지원했습니다. 또 푸르메소셜팜 교육문화동 건립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2021년 푸르메와 함께한 기업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기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미라클스 27호 회원

김윤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장

푸르메재단 설립 초기부터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단 이사로서 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김윤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 지난 2019년 10월 3대 원장으로 취임해 병원을 이끌며 국내 소아재활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재활에 힘쓰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푸르메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The Miracles) 27호 회원이 되었습니다

김 원장이 선뜻 기부에 나선 이유는 시민 1만 명과 500개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든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후원과 시민의 기부를 계속 활성화해 장애어린이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평생을 재활의학에 전념한 데는 김 원장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하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민이나 애환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지요. “몸이 좀 불편한 것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하고자 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1981년 장애인으로는 처음 가톨릭대 의대에 입학한 그는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겠다고 재활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모교의 재활학과 교수가 됐고, 전문의 자격

증을 딛 뒤부터 지역사회에서 종종 장애인을 돕는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함께 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 위원 등을 맡아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지금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철학에 잘 녹아있습니다.

“장애나 병이 아니라 ‘인간’을 봐야 해요. 한 개 한 개의 세부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포괄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재활의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김 원장은 장애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곧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나눔’은 스스로의 삶도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기부 문화가 확산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는 ‘나눔’은 스스로의 삶도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5 푸르다, 푸르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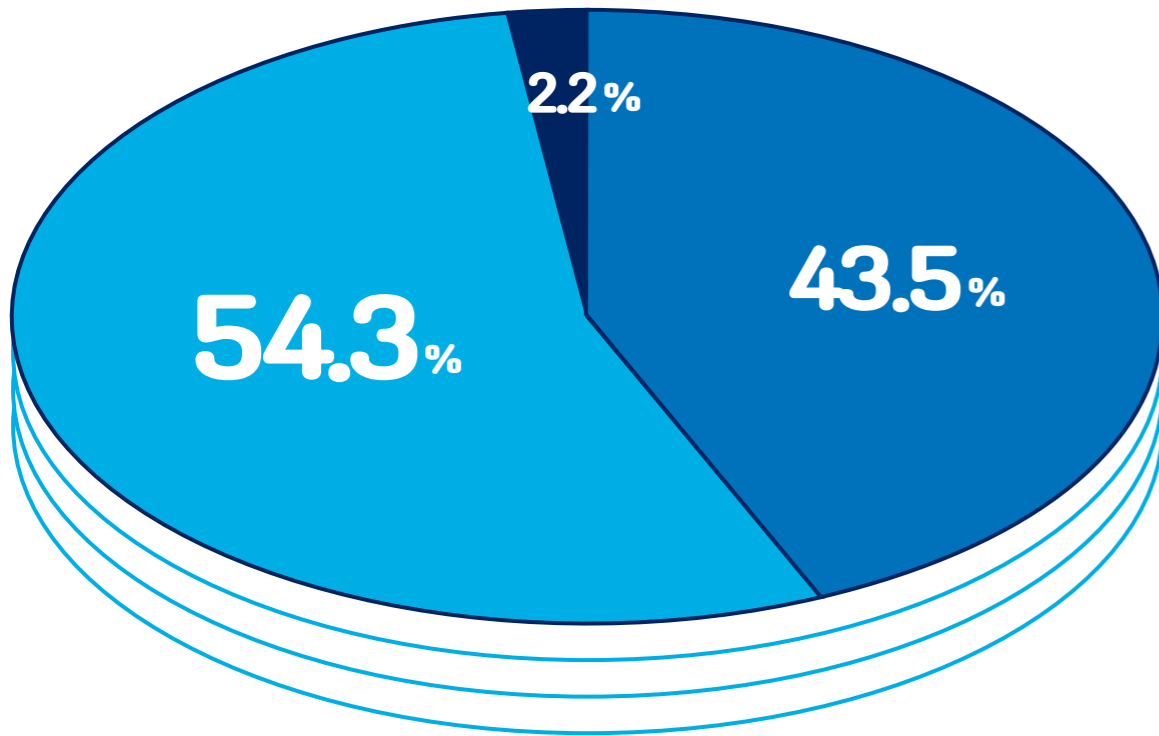


투명한 결산

2021년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많은 사랑과 정성이 모였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눔의 손길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자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와 엄격한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수입

9,790,554,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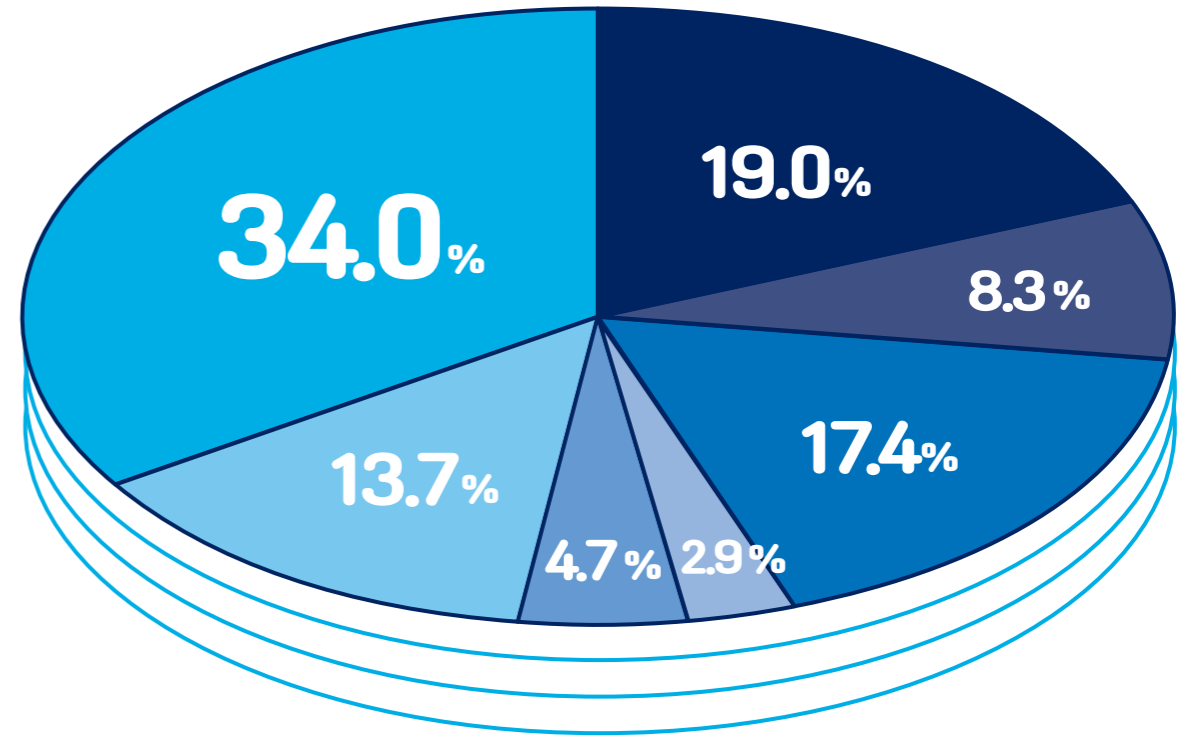
- 기업 기부 기업이 전한 희망의 손길 **5,312,481,049원**
- 개인 기부 개인이 모은 기적의 씨앗 **4,263,556,940원**
- 기타 수입 이자 수입 등 기타 잡수입 **214,516,211원**

한국가이드스타 최고 등급 선정

2021년 푸르메재단은 비영리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효율성 부문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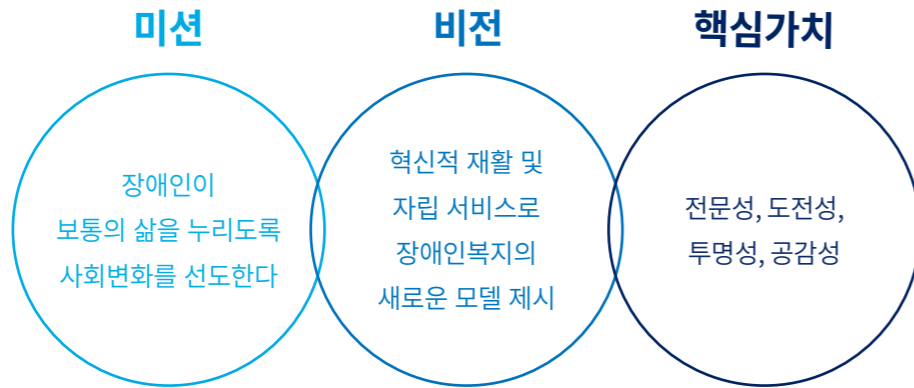
총 지출

9,790,554,200원



구분	내용	금액(원)	비율
● 배분사업	장애어린이 및 장애자녀 가족의 치료, 교육, 문화·여가 등 지원	1,856,039,135	19.0%
● 어린이 재활치료기관 지원	푸르메재단 넥스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재활센터, 종로아이존 운영 지원	806,934,800	8.3%
● 푸르메소셜팜 건립 및 운영 지원	푸르메소셜팜 건립 및 운영, 장애인 일자리 조사·연구 등 지원	1,707,931,664	17.4%
● 장애인복지·자립기관 지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푸르메스마트팜서울농원,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운영 지원	284,000,000	2.9%
● 모금·홍보·장애인식개선 사업	기부자 개발·관리, 모금, 출판, 홍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464,475,551	4.7%
● 푸르메재단 운영	인건비, 사무비, 공공요금 사용	1,338,852,289	13.7%
● 이월금	2022년 배분사업 및 푸르메소셜팜 건립·운영 기금	3,332,320,761	34.0%
합계		9,790,554,2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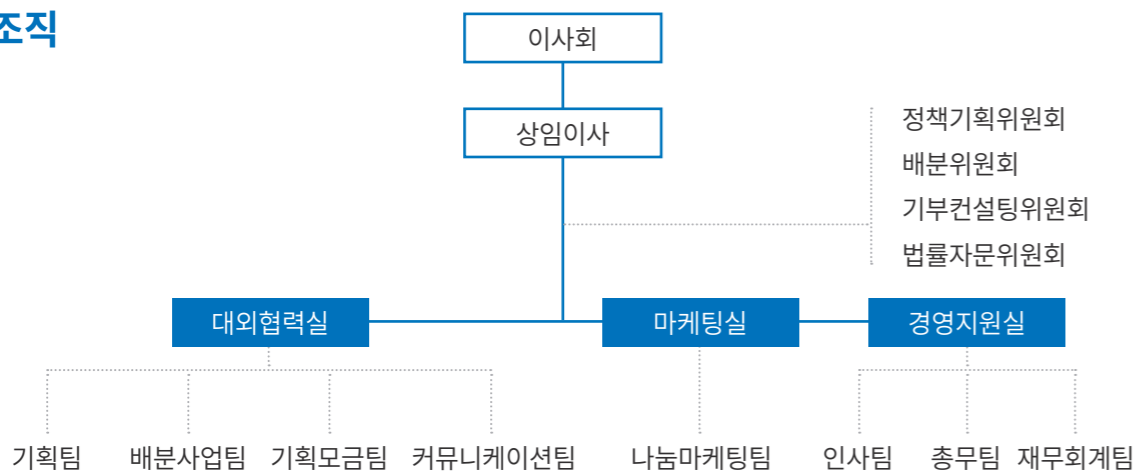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주요사업

- 배분**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 의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 사회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출판**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조직



이사회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명예이사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우리마을 총장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공동대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상임이사 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	 이사 김학준 前 인천대학교 이사장
 이사 원택 스님 해인사 백련암 주지	 이사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윤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병원장	 이사 최영범 효성 부사장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백은령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사 김문규 태울회계법인 이사	 감사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보대사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엄홍길 산악인	 선 가수	 이지선 작가·교수	 서경덕 홍보전문가	 이근호 축구선수	 이은미 가수
 이종범 야구코치, 前 야구선수	 이정후 야구선수	 김민재 축구선수	나눔대사 푸르메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합니다.		 김미경 MKYU 대표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이종수 위원장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은애 청년사회적경제지원단체 씨즈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동건 울산MBC 사장
정재권 서울시 시민대학 학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

배분위원회 배분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사·선정합니다.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
곽재복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영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희정 서울의료원 사회사업팀 팀장
두정희 前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실장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장
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
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박미혜 前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경주 前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고문
송동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우창윤 前 서울시의회 의원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이민중 前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장
이원일 푸르메재활센터 센터장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조명민 장애인 부모
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의원 원장
홍지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재단의 법률문제를 자문·지원합니다.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하기관 현황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재활센터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전문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재활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1~2층
 T. 02-6395-7000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5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c.modoo.a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0
 H. seoulpanis.modoo.at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6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장애청년에게 농업을 통해 삶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725
 T. 031-572-4025
 H. purmefarm.modoo.at

푸르메소셜팜

장애청년에게 농업을 통해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31-882-5181
 H. purmesocialfarm.modoo.at

푸르메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